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 17화 사카족의 성인



마라 파피야스(Mara Papiyas), 이자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일까? 이 세상에 까마(Kama, 욕망)를 벗어날 수 없는 곳을 욕계(欲界)라 한다. 이 욕계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상(地上)을 포함하고 위로는 신들의 세계 일부를 포함하며 아래로는 지옥(地獄)의 전체를 포함하는 실로 엄청난 세계를 의미한다.

욕계에 속하는 천상 중에서 제6천(第六天)인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Paavaui Rmijavasi Vautideal)의 임금인 마왕(魔王)인 마라 파피야스인 것이다. 이 마왕은 항상 악한 뜻을 품고 나쁜 법을 만들어 수도자들을 교란하고 인간의 해명(慧明)을 꾀는 것을 그의 임무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사람이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 해탈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까마(욕망)의 세계로부터 지옥으로만 국한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을 욕계의 영토안에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싯다르타가 열반으로 오르는 길만은 필히 막아야만 하는 것이다.

사카(Sakya)족의 큰 무니(Muni, 釋迦牟尼)가 열반(Nirvana, 涅槃)에 오르기 위하여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자 마왕 파피야스는 크게 당황하여 깊은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침 마왕(魔王)에게는 3명의 딸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욕염(欲焰)과 능열인(能悅人) 그리고 가애락(可愛樂)등 이었다. 이들이 마왕궁에 들어가보니 아버지 파피야스 마왕이 불안한 표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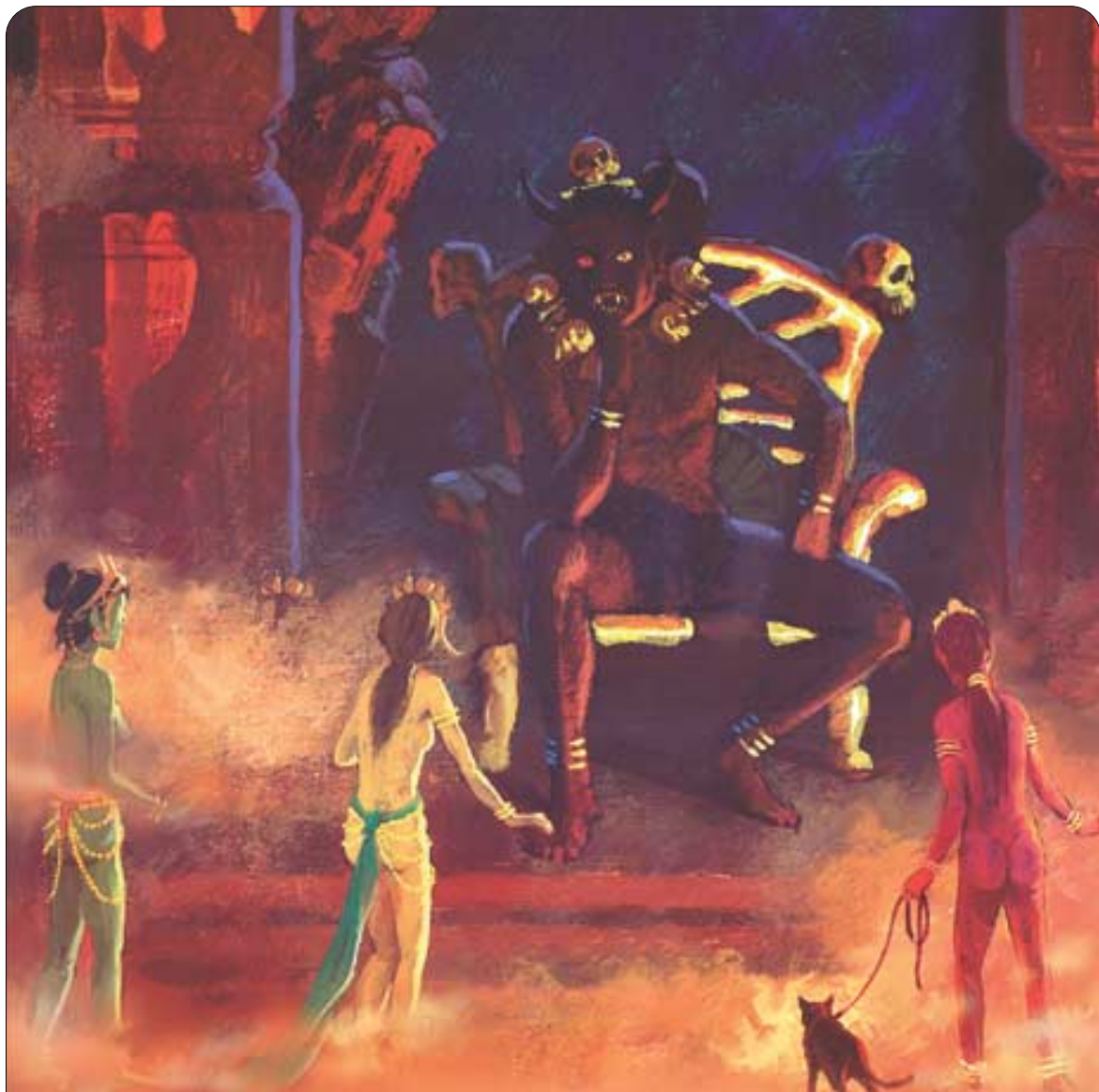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우리의 위대한 제 6천의 마왕이시여, 전 세계의 모든 욕계(欲界)를 호령하시는 우리 아버지 마왕께서 무엇이 그리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계시옵니까? 혹시 저희를 계집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명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다하여 아버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나의 고민을 털어 주려는가. 저 세간의 사카무니(Sakya Muni, 사카족의 큰 성인)가 있어 해탈의 경지에 극도로 접근하고 있다. 만약 그가 불가능의 선을 넘어 서면 오욕 속에 허덕이는 나의 백성들을 깨우쳐 모두 데려갈

것이니 나는 그런 일이 있기전에 그의 성도를 막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 그동안 사람들을 오욕(五慾)에 빠뜨려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며 경쟁하고 싸우며 죽이고 미워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세운 욕계의 법이 한낱 사카족의 무니(聖人)에게 도전 받아 무너진다면 우리는 설 곳이 없게 되고 만다.”

이제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 사카무니(석가모니)가 열반에 이르는 정도(正道)를 찾아 그길로 들어섰으므로 그가 성도(成道) 하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하니 그가 성도 후 나에게 도전장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공격하여 성도의 길을 막으려 하는 도다.



“아버님 마왕(魔王)이시여, 그까짓 일에 무슨 고민을 하시나이까, 그 사카족의 무니는 아직도 35세를 넘지 못하는 열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를 공격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들어 쟁론을 벌이거나 혹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군대를 일으킨다 하여도 결코 그의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삼형제가 그의 낱자 된 부분을

집중공략하면 결국 그도 우리의 가슴에 얹어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최대의 약점이고 또한 우리들의 최고의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호호호... 사카무니(Sakya Muni)의 일은 저희들 삼형제에게 맡겨 놓으소서,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젊은 청년을 유혹하여 다시 욕계(欲界)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마라 파피야스 마왕은 이날밤 싯다르타를 향하여 사카무니라고 호칭하였다. 이는 싯다르타가 이미 성도(成道)의 길목에 들어섰으므로 이전 보통 인간의 경계를 넘어 성자(聖者)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카(Sakya)는 사카족을 의미하고 무니(Muni)는 성인을 뜻하므로 사카무니(Sakya Muni)는 곧 사카족의 성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한문자로 빌려 석가모니(釋迦牟尼)라고 표기하고 있다.